

---

## 광주 '인사이트(Insight) 경제'

---



사단 법인 **경제문화공동체 더함**

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61-42번지(3층)  
T (062) 431-6339 F (062) 262-6340  
<http://www.eccplus.co.kr>

## 《요 약》

### ▶ 경기지표

광주지역 12월 경기확산지수는 전월 3.7보다 상승한 4.3을 기록함. 지난 반년 동안 경기확산지수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. 제조업과 수출 지표가 개선된 반면, 내수와 금융 지표는 부진.

### ▶ 제조업 및 수출

광주지역 12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비 19.5% 상승하며 전월에 비해 큰 상승폭을 보임. 최근 제조업 생산지수의 변동은 지역 내 제조업 중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 제조지표의 영향 때문임. 고무 및 플라스틱과 전기장비의 상승폭이 특히 컸고, 자동차 제조업과 전자부품은 소폭 상승함.

### ▶ 내수

광주지역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전월대비 소폭 증가한 123.2로 인천과 부산보다 높음.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,886억원으로 울산을 넘어섬. 판매액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-4.6% 하락하면서 광역시 중 가장 낮음. 광주지역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광역시 중 가장 낮음.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3.05%로 3개월 연속 하락함.

### ▶ 고용

전국적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광주지역 1월 실업률은 2.7%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음. 고용률은 57.8%로 전국 58.5%에 미치지 못하나 최근 고용률 하락세에 비하면 광주지역 고용률 감소폭은 작은 편에 속함. 자영업자의 수는 159천명으로 전월보다 1천명 증가, 임금근로자는 532천명으로 전월보다 7천명 감소함. 연령별로는 20세~29와 50~59세의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30~49세와 60세 이상의 취업자는 감소함.

### ▶ 물가 및 가계

1월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1.4% 상승하여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. 의류 및 신발, 주택가격의 상승과 수도·전기와 같은 공공요금의 인상, 음식 및 숙박업, 기타 상품 및 서비스의 물가상승이 요인임. 1월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비 0.9%, 종합주택전세가격지수는 1.8% 상승함.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72.9%로 주요 광역시 중 가장 높으나 타 지역에 비해 전세가격의 움직임은 안정되어 있음.

### ▶ 가계부채

11월 광주지역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부채는 15조709십억원으로 전년동월비 6.7% 상승함.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부채 비중이 44.8%를 차지함. 기관별로 상호금융 53.8%, 신용협

동조합 21.9%, 새마을금고 19.4%, 상호저축은행 4.4%의 비중임. 금융기관별 가계부채 증가율은 예금은행이 10.2%,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2.8%임.

▶ 투자확산지수

2014년 2월 투자확산지수는 12.7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. 경기지표들의 움직임이 일관되지 못하고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점차 하락세를 보이는 지표들이 늘어나기 시작함.

▶ 집중분석 - 인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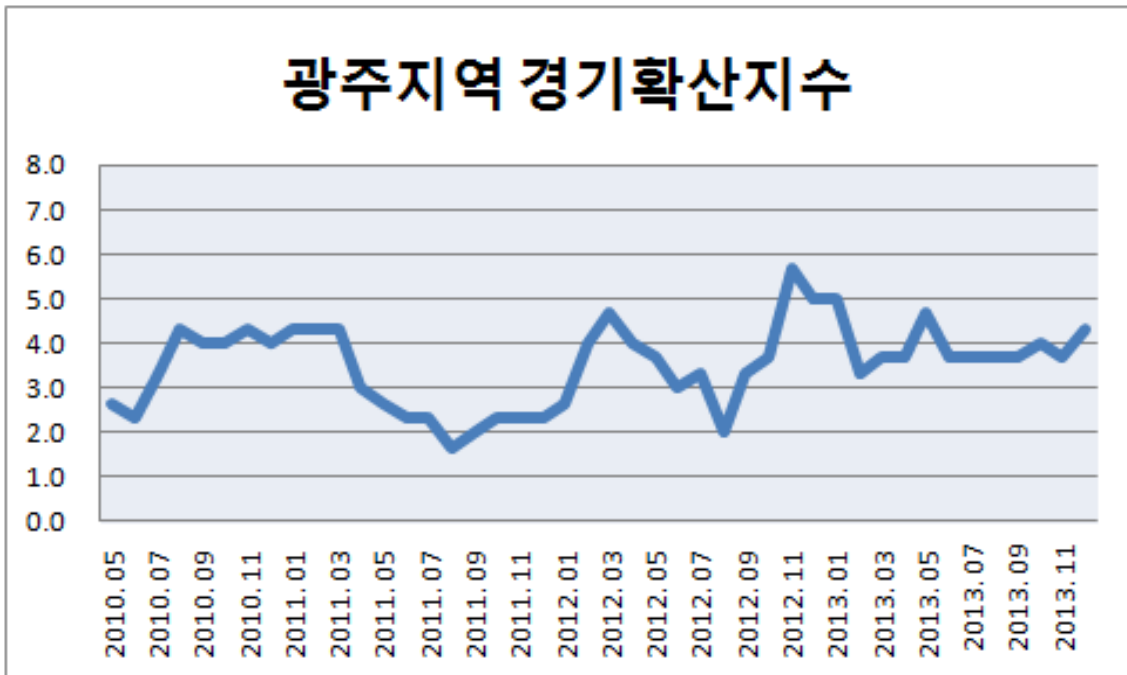
광주광역시의 인구증가율이 점차 하락함에 따라 인구 이동에 대한 정보의 중요도가 상승함. 2013년 광주지역의 전입자는 226,696명 전출자는 229,288명을 기록함.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차감한 순이동은 -2,592명으로 2012년부터 (-)로 돌아섬.

광주광역시의 총인구에 비하면 순이동의 규모는 매우 작지만 이것은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음. 2013년 20~24세와 25~29세의 이동률은 각각 -1.3%, -1.1%로 학업과 취직을 위해 수도권이나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으로 전출되었음을 유추. 반면, 0~14세까지의 유소년층의 유입이 큰 편이며 생산가능인구(15~65세) 중에서는 35~39세만이 소폭 유입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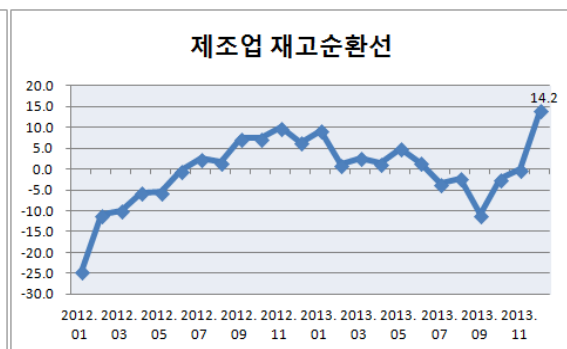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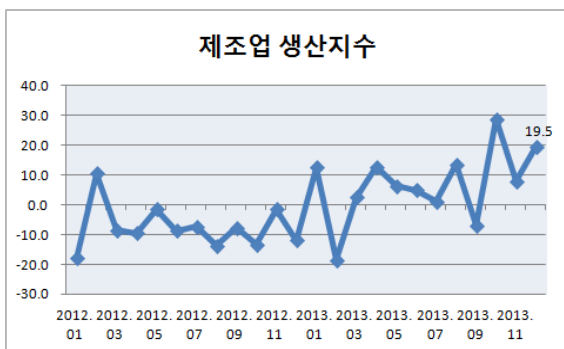
광주지역의 연령별 인구이동상태는 광주지역 인구의 연령별 구성비에 영향을 주고 있음. 유소년층(0~14세)의 비중이 16.6%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생산가능인구(15~65세)의 비중은 73.3%로 타 지역보다 낮음. 이에 따라 광주지역의 유소년부양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임.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은 광주시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생산가능인구로 더 많은 비생산가능인구를 부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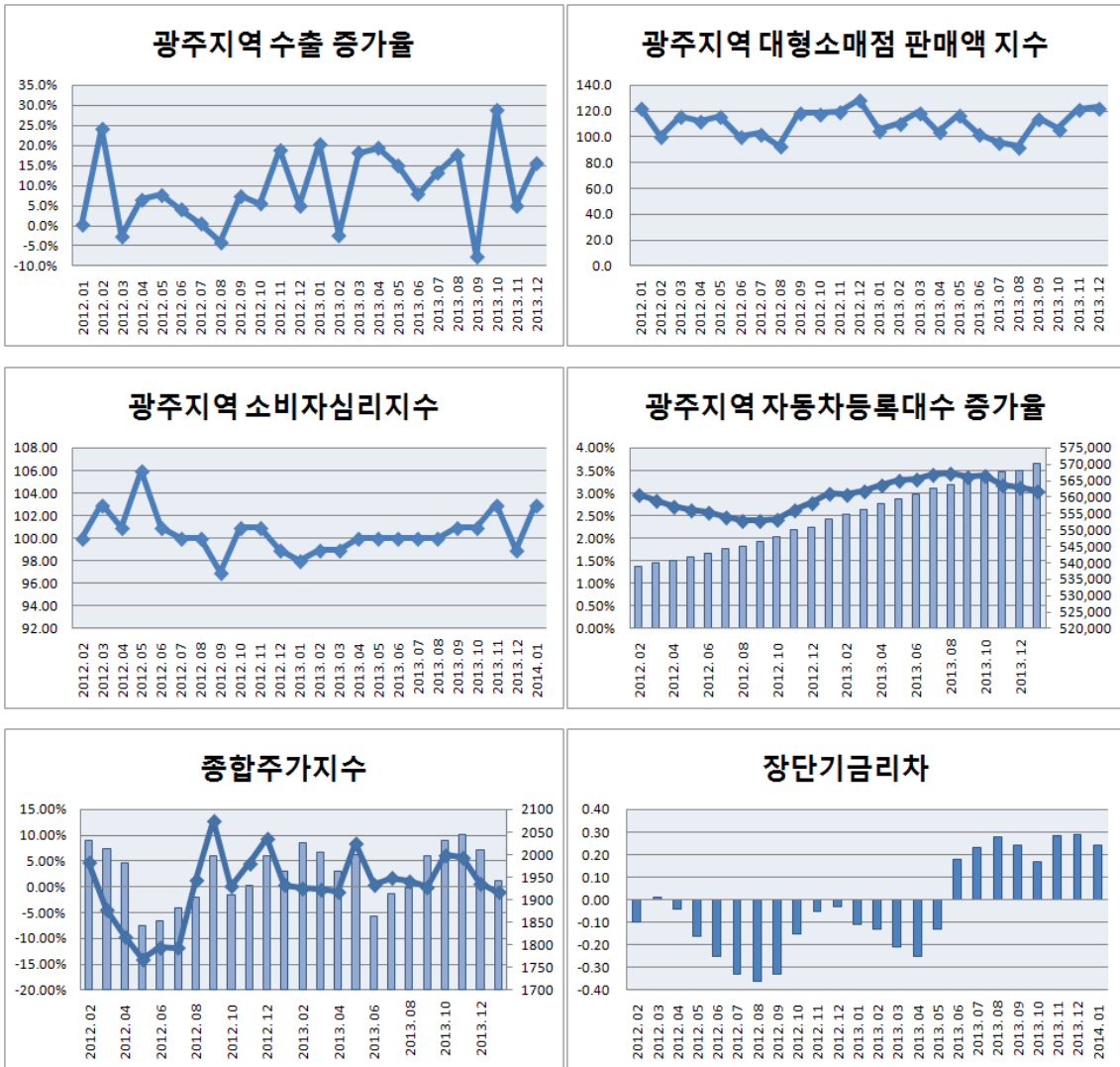
## 1. 경기지표

- 광주지역 12월 경기확산지수는 전월 3.7보다 상승한 4.3을 기록함. 지난 반년 동안 경기확산지수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. 제조업과 수출 지표가 개선된 반면, 내수와 금융 지표는 부진하였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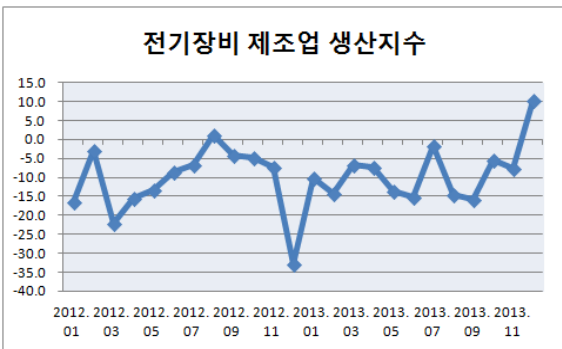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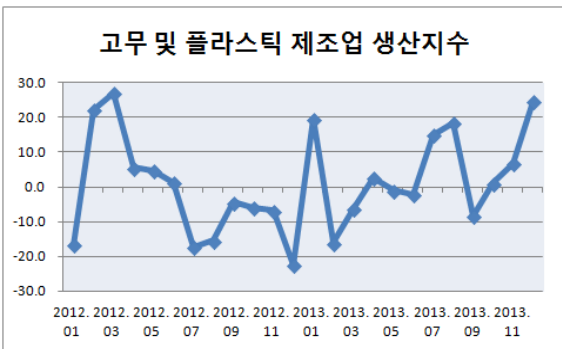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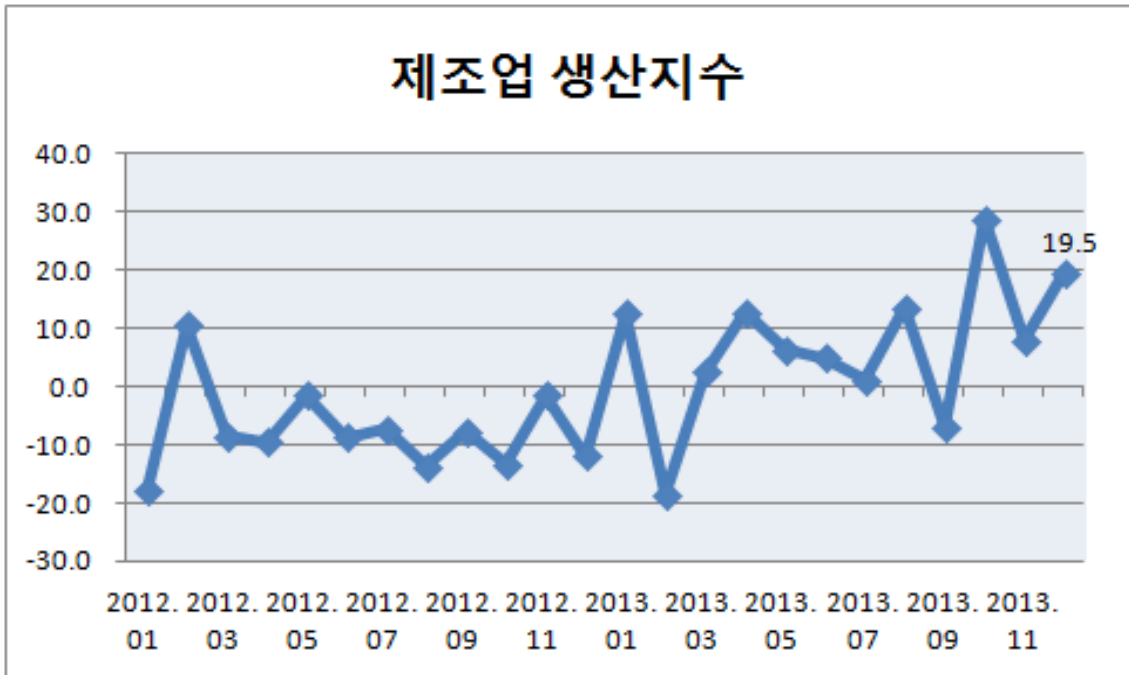
\* 광주지역 경기확산지수는 광주지역의 경기 동향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지표입니다. 생산, 수출, 내수, 금융 등 각 분야의 다양한 경제지표들을 선정·취합하였고 0에서 8사이에서 경기의 등락과 추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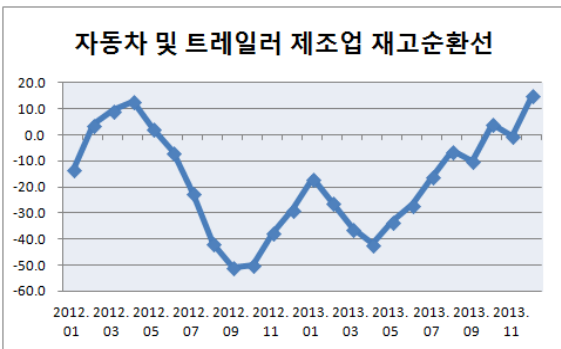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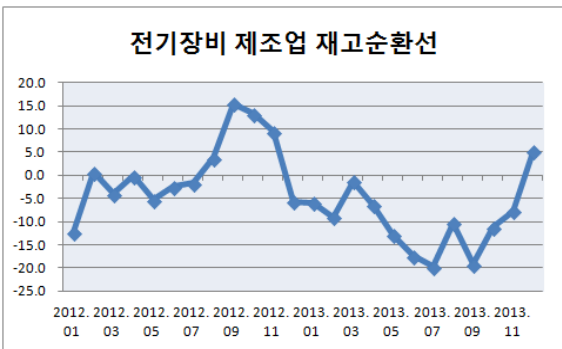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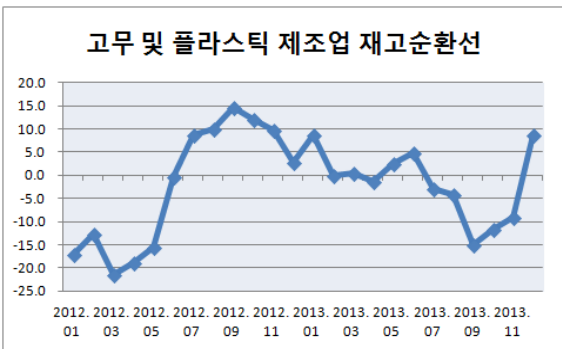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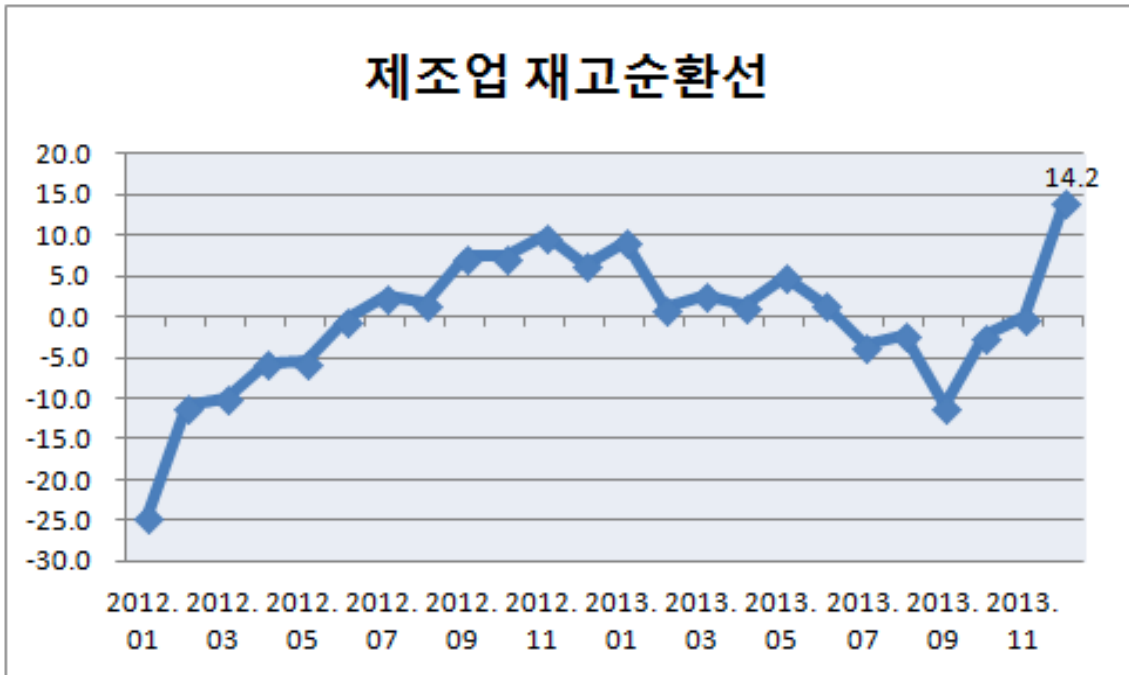


## 2. 제조업 및 수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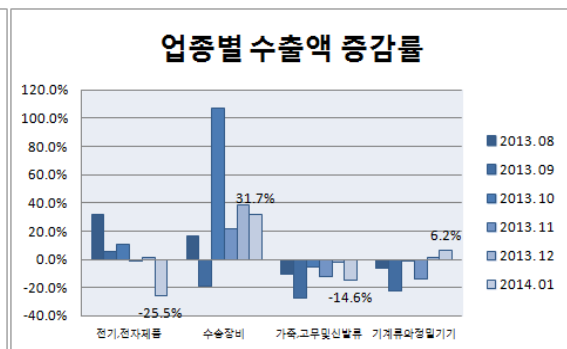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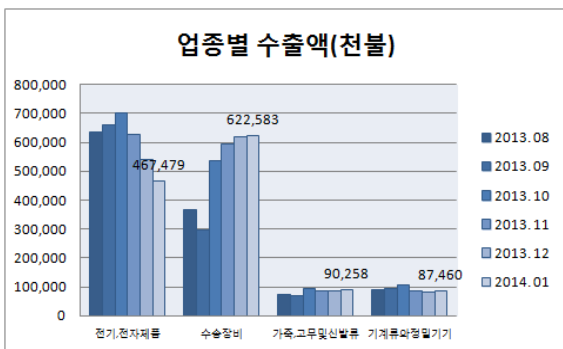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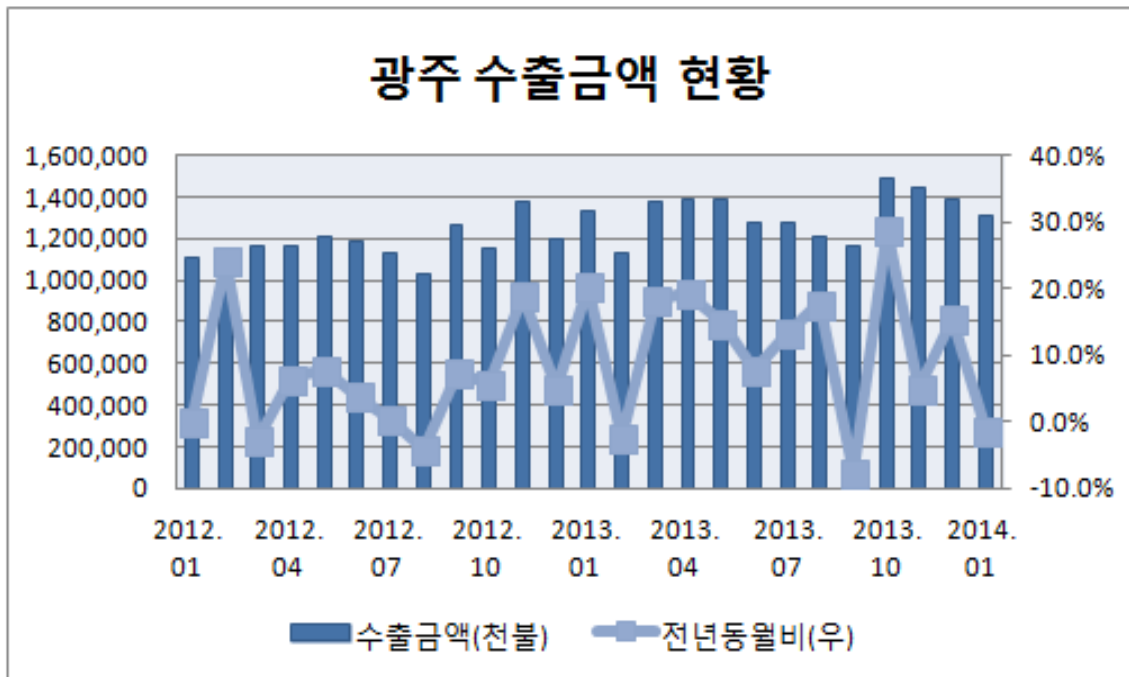
- 광주지역 12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비 19.5% 상승하며 전월 8.0%에 비해 큰 상승폭을 보임. 최근 몇 개월간 생산지수의 큰 기복은 지역 내 제조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자동차 제조분야 지표의 영향 때문임.
- 주요 업종의 지표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고무 및 플라스틱과 전기장비의 상승폭이 특히 컸고, 자동차 제조업과 전자부품은 소폭 상승함.



□ 광주지역 12월 제조업 재고순환선은 지난달보다 대폭 상승한 14.2를 기록함. 고무 및 플라스틱, 전기장비의 상승폭이 컸고 자동차 제조업도 상승추세를 이어감. 전자부품 제조업만이 소폭의 상승에 그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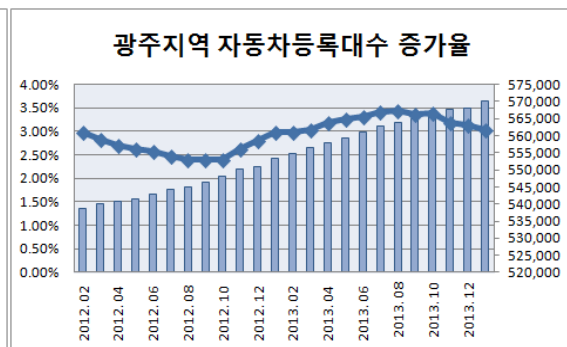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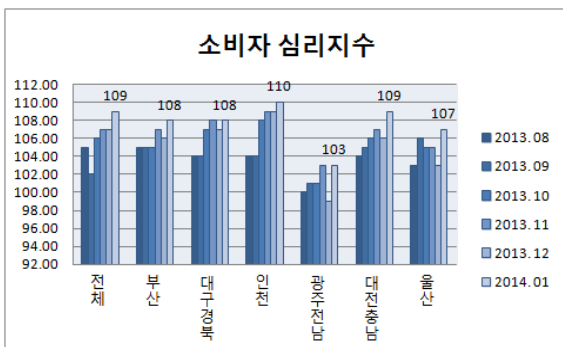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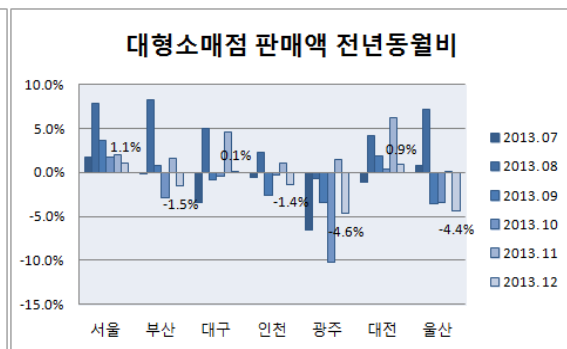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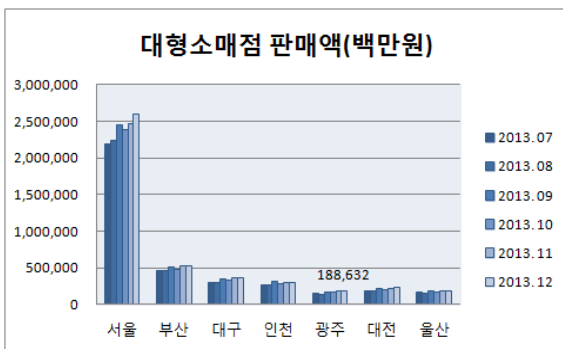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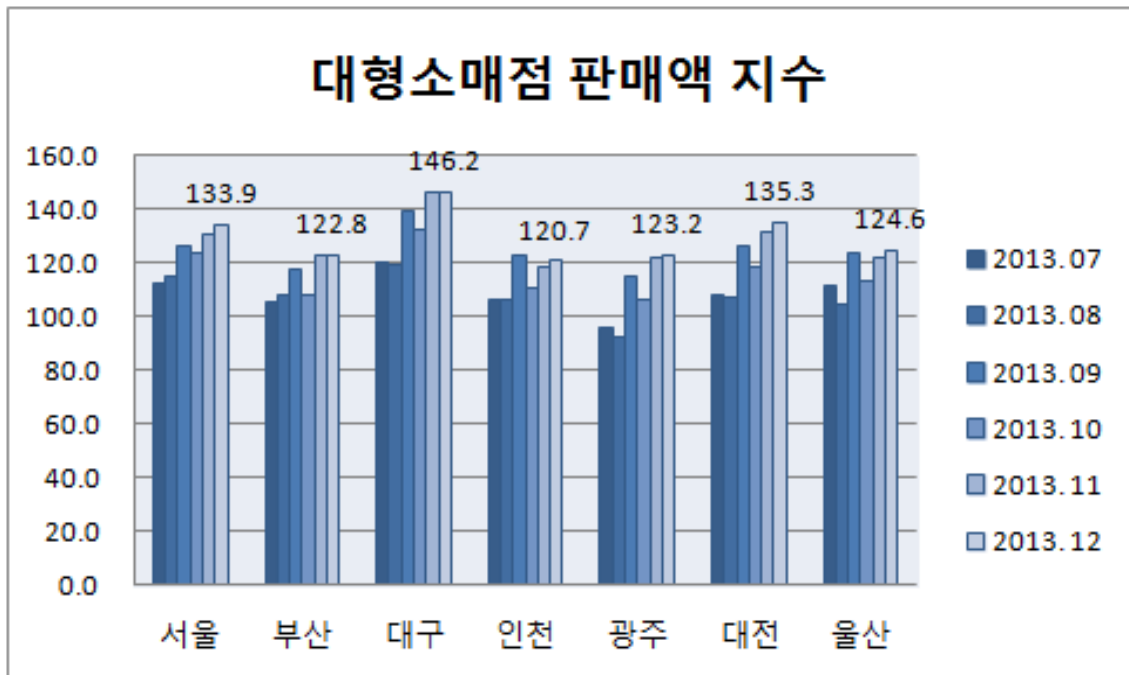
□ 광주지역 1월 수출액은 13억1265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-1.4% 감소했음. 주요 업종으로 보면 수송 장비(자동차 제조업)가 31.7%, 기계류와 정밀기기가 6.2% 수출이 증가하였고 전기, 전자제품과 고무제품은 각각 -25.5%, -14.6% 수출이 감소함.



### 3. 내수

- 광주지역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달보다 소폭 증가한 123.2로 인천과 부산보다 높음.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,886억원으로 울산을 넘어섬. 판매액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-4.6% 하락하면서 광역시 중 가장 낮음.
- 광주지역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으로 상승했으나 광역시 중 가장 낮음.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3.05%로 3개월 연속 하락함.
- 소매점판매액 지수의 상승에도 전년동월비가 낮은 것은 소매점판매액 지수가 2010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임. 따라서 2010년에 비해 내수의 증가율이 부산과 인천에 비해 컸으나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광주의 내수가 부진하다는 의미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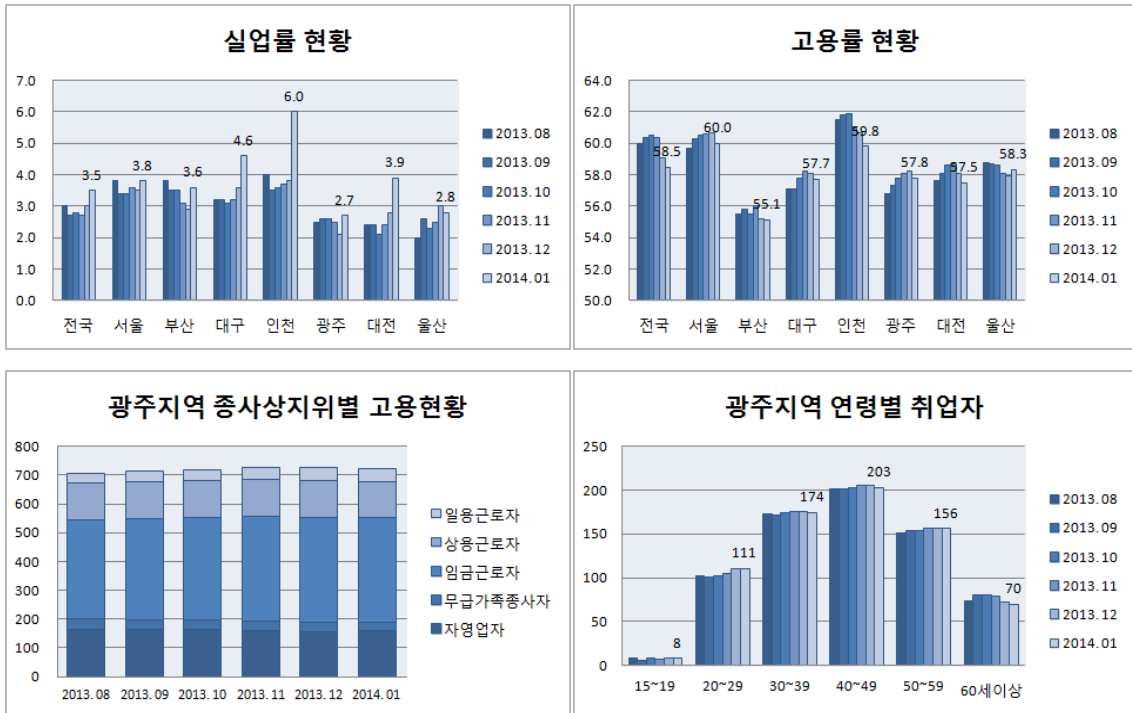




#### 4. 고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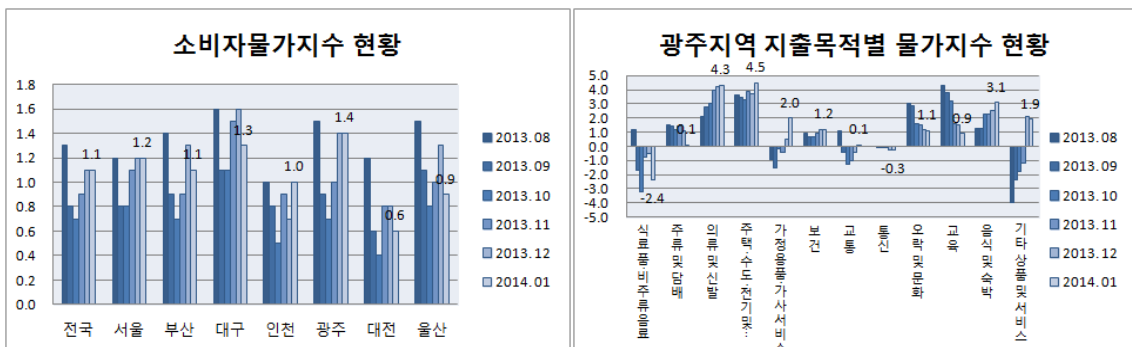
- 전국적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광주지역 1월 실업률은 2.7%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음. 고용률은 57.8%로 전국 58.5%에 미치지 못하나 최근 고용률 하락세에 비하면 광주 지역 고용률 감소폭은 작은 편에 속함. 자영업자의 수는 159천명으로 전월보다 1천명 증가, 임금근로자는 532천명으로 전월보다 7천명 감소함. 연령별로는 20세~29와 50~59세의

취업자가 증가하였고 30~49세와 60세 이상의 취업자는 감소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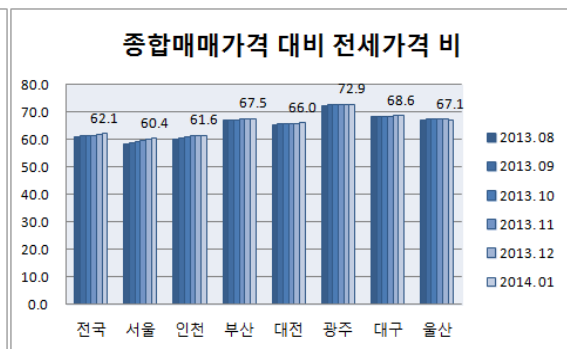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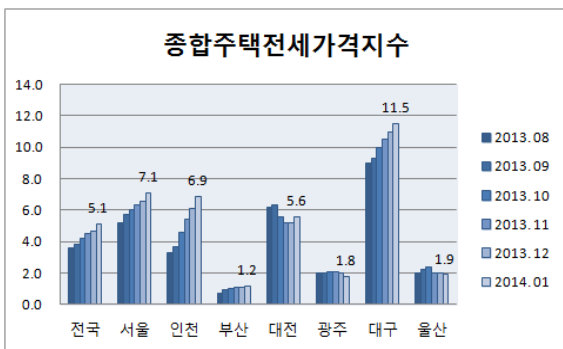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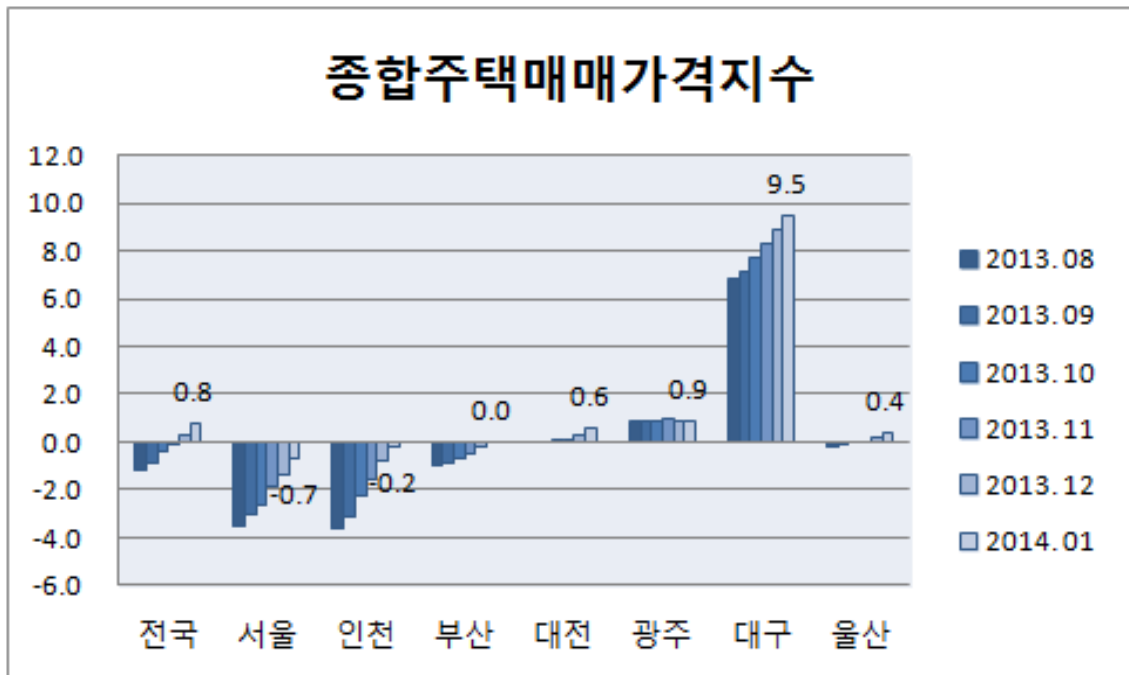


## 5. 물가

- 1월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1.4% 상승하여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. 의류 및 신발, 주택가격의 상승과 수도·전기와 같은 공공요금의 인상, 음식 및 숙박업, 기타 상품 및 서비스의 물가상승이 요인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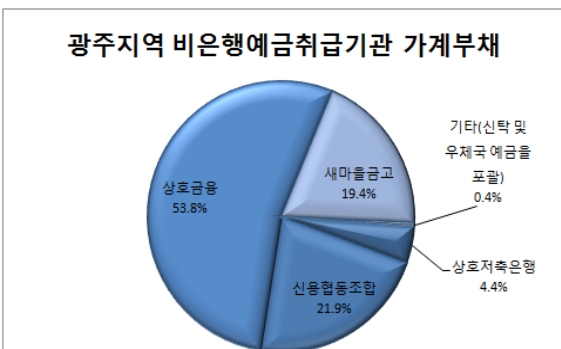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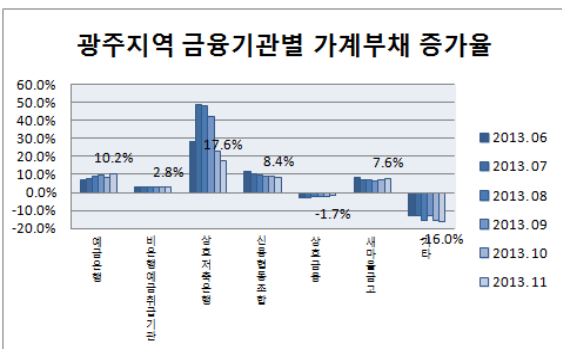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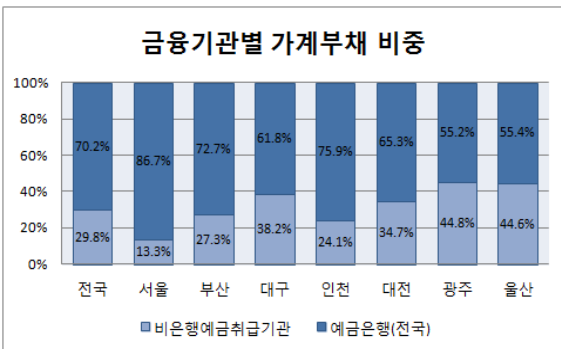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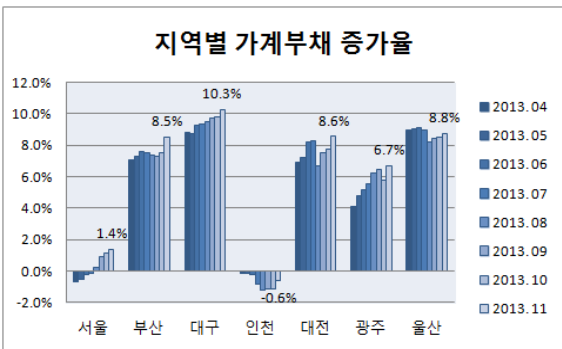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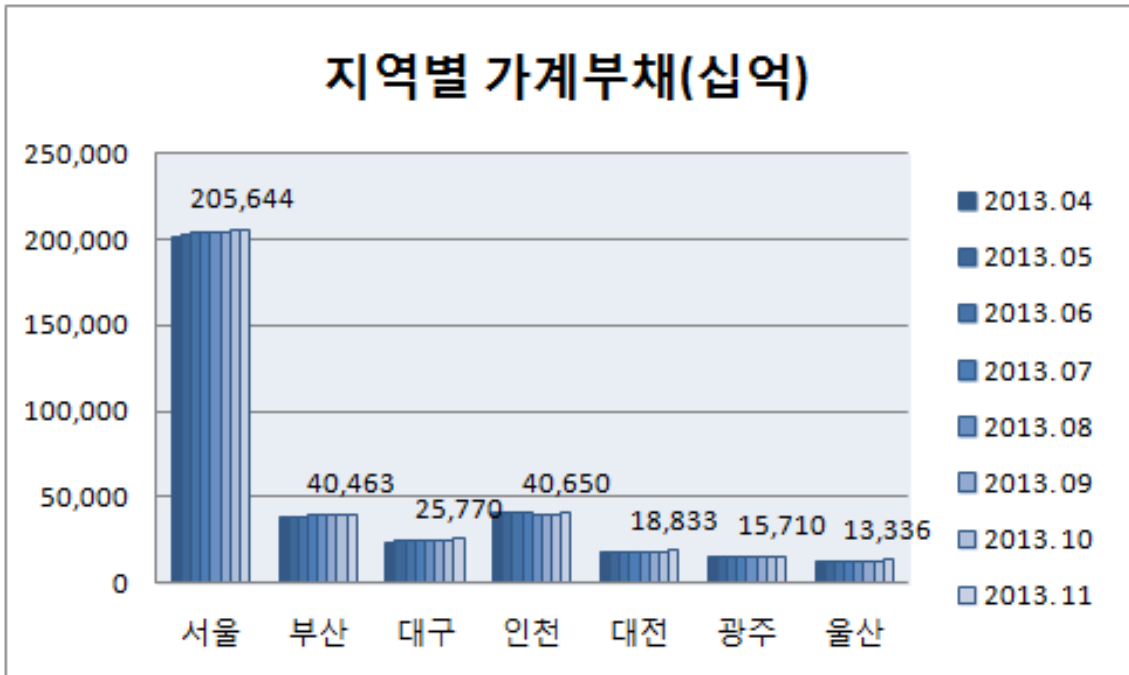


- 1월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비 0.9%, 종합주택전세가격지수는 1.8% 상승함.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72.9%로 주요 광역시 중 가장 높으나 타 지역에 비해 전세가격의 움직임은 안정되어 있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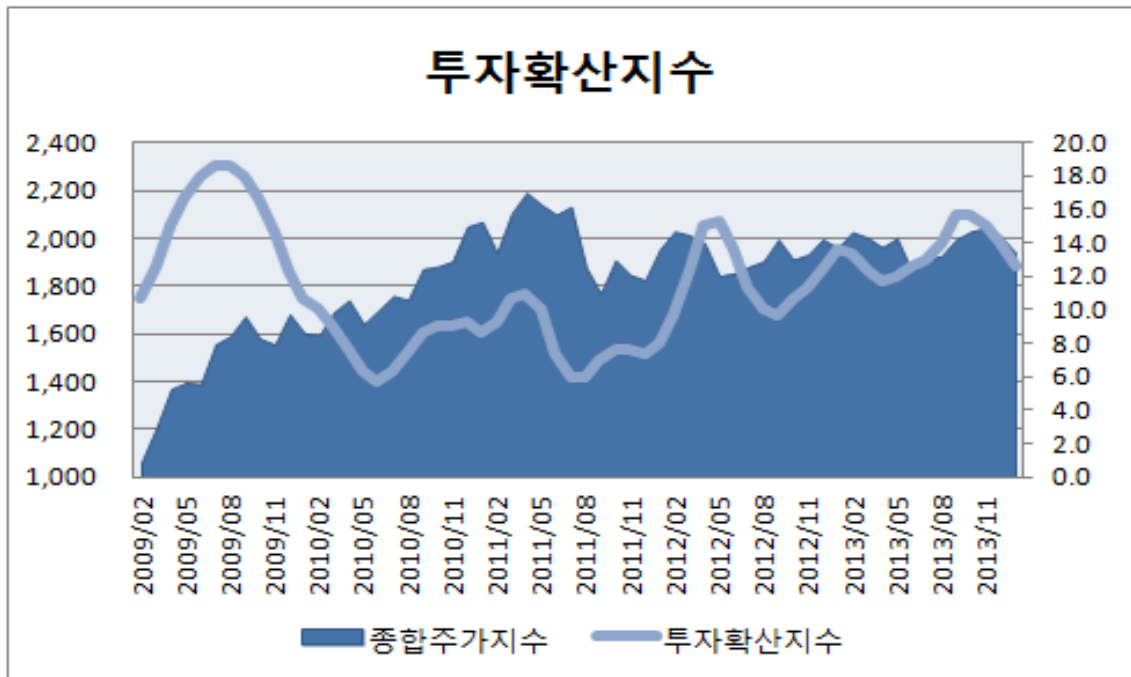
## 6. 가계부채

- 11월 광주지역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부채는 15조709십억원으로 전년동월비 6.7% 상승함.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부채 비중이 44.8%를 차지함. 기관별로 상호금융 53.8%, 신용협동조합 21.9%, 새마을금고 19.4%, 상호저축은행 4.4%의 비중임. 금융기관별 가계부채 증가는 예금은행이 10.2%,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2.8%임.
- 전체적인 부채액은 낮은 수치이나 상대적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(1금융권을 제외한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신협, 저축은행 등)의 비중이 높은 점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함.



## 7. 투자확산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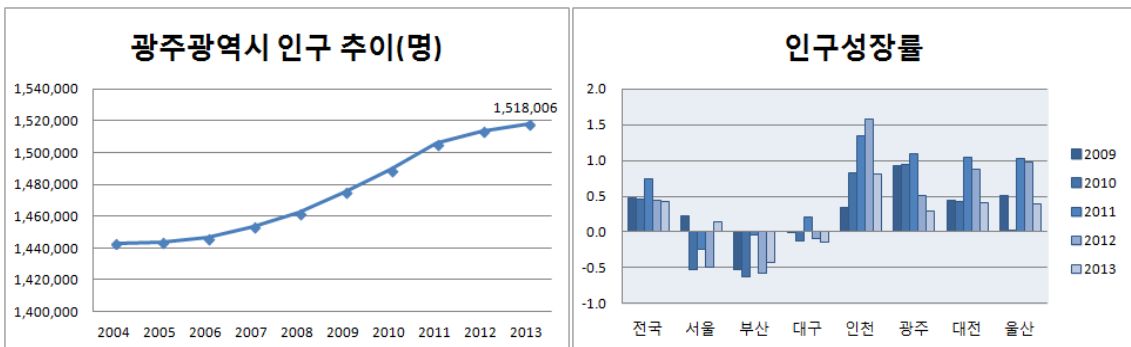
- 2014년 2월 투자확산지수는 12.7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. 경기지표들의 움직임이 일관되지 못하고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점차 하락세를 보이는 지표들이 늘어나기 시작함.



\*투자결정에 있어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 및 금융시장 지표들을 선정해 만든 확산지수입니다. 투자확산지수의 상승 시 투자를 결정 또는 확대, 하락 시 투자를 철회 또는 축소하는 방식입니다.

### 8. 집중분석 - 인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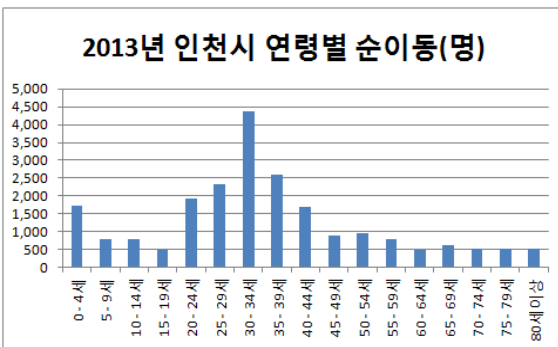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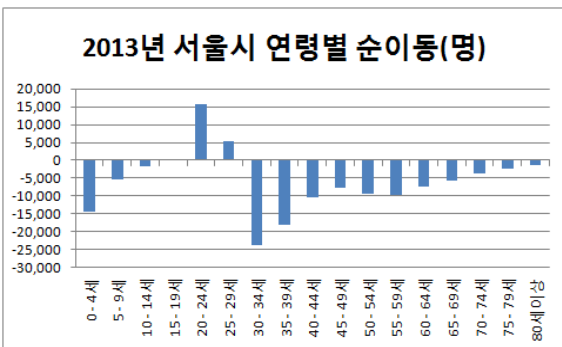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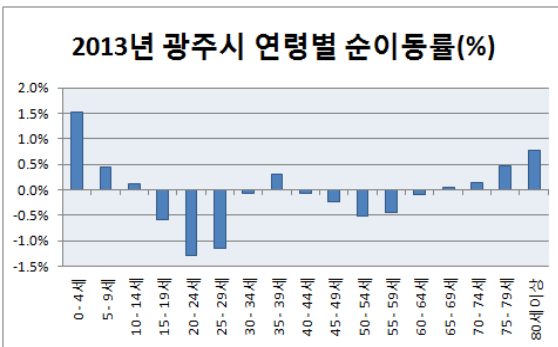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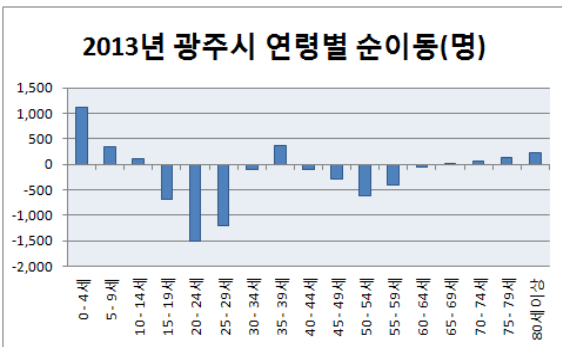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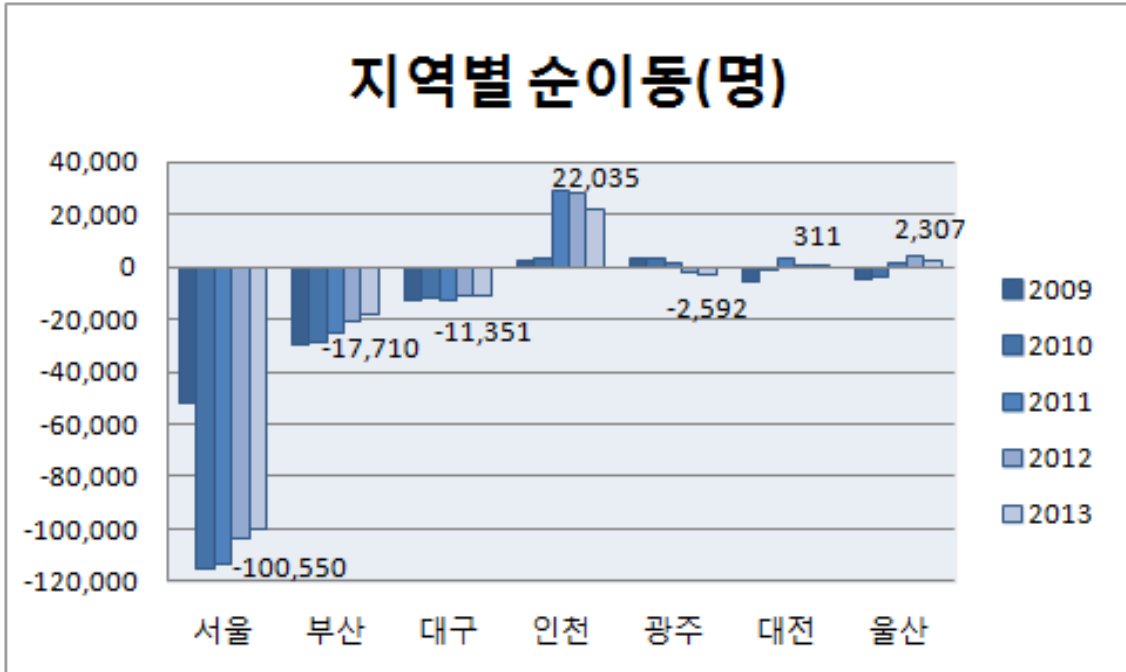
-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3년 광주광역시의 총인구는 1,518,006명, 인구성장률은 0.3%로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임.
- 광주광역시의 인구증가율이 급락한 것이 일시적 현상에 그쳐 향후 해소될 수 있으나 어쨌든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후에도 계속 인구증가율은 낮아질 것을 가정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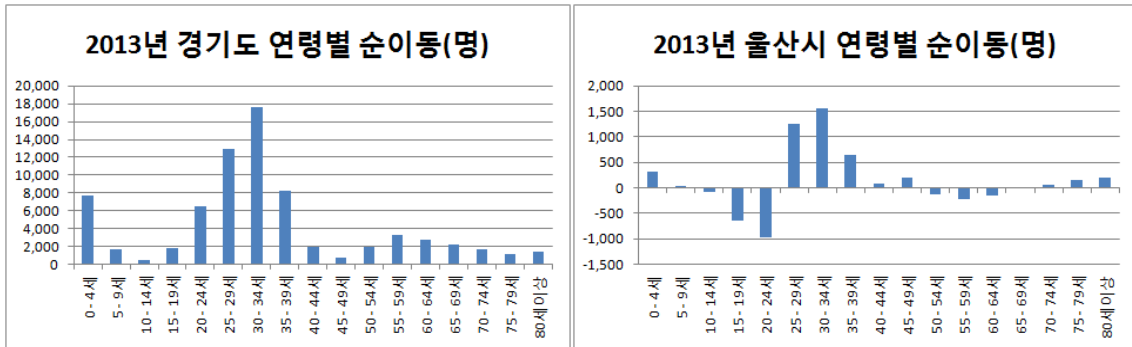


- 인구증가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타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 또는 타지역으로의 인구유출에 대한 정보가 중요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.
- 2013년 광주지역의 전입자는 226,696명 전출자는 229,288명을 기록함. 전입자에서 전출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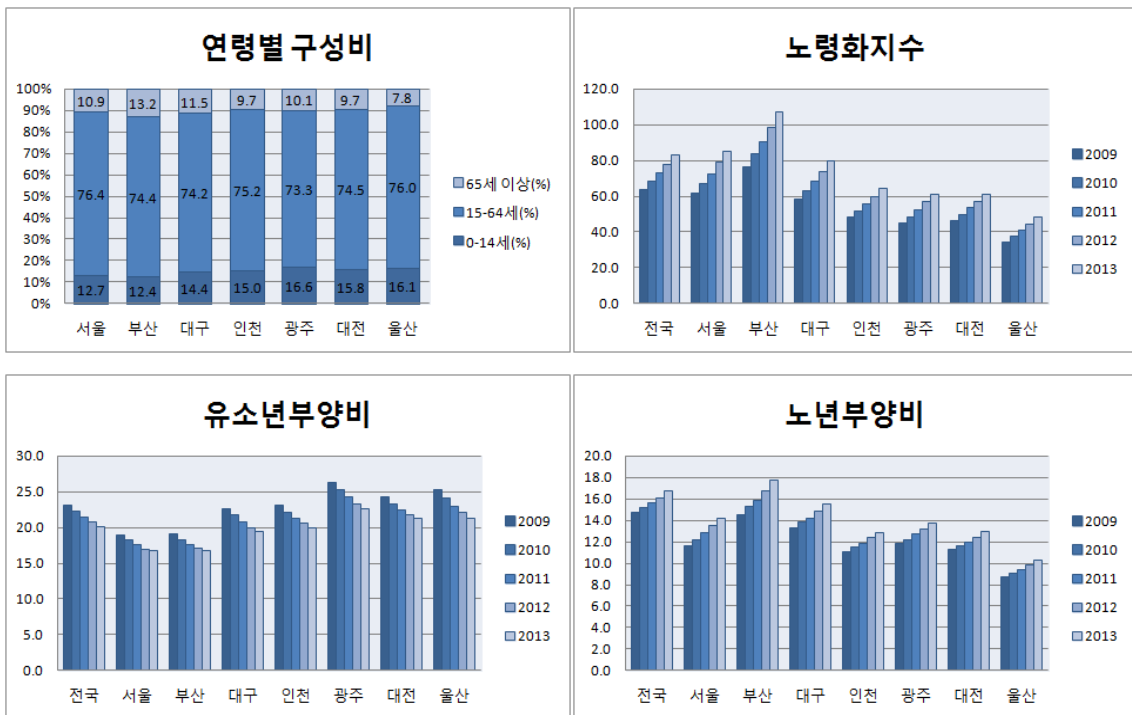
를 차감한 순이동은 -2,592명으로 2012년부터 (-)로 돌아섬.

- 광주광역시의 총인구에 비하면 순이동의 규모는 매우 작지만 이것은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음. 2013년 20~24세와 25~29세의 이동률은 각각 -1.3%, -1.1%로 학업과 취직을 위해 수도권이나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으로 진출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음.
- 반면, 0~14세까지의 유소년층의 유입이 큰 편이며 생산가능인구(15~65세) 중에서는 35~39세만이 소폭 유입되고 있음.





- 광주지역의 연령별 인구이동상태는 광주지역 인구의 연령별 구성비에 영향을 주고 있음. 인구유입이 유소년층(0~14세)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이들의 비중이 16.6%로 타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인구가 유출되는 생산가능인구(15~65세)의 비중은 73.3%로 타지역보다 낮음.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타 지역에 비해 그다지 높거나 낮지 않음.
- 이에 따라 광주지역의 노령화지수나 노년부양비 수준은 타지역에 비해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니나 유소년부양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임.



-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은 광주시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생산가능인구로 더 많은 비생산가능인구를 부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.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대의 인구유출을 가능한 억제하고, 30대의 유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.